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5월 개최 '만전'

우범기 시장,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송재영 대표와 개최 위한 간담회 가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무형유산 보유인 전주시는 무형문화유산 가치를 끌어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7일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송재영 대표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개최 위한 간담회를 시장실에서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오는 5월 전주에서 열리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학생대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며, 무형유산 전승과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예년과 같이 5월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대회 본선 경연은 오는 5월 21일 열리고, 대망의 전국대회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17일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송재영 대표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개최 위한 간담회를 시장실에서 가졌다.

본선 경연은 5월 22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보존회는 조선 후기 전주의 다가정(多佳亭)과 같은 대사습의

정취를 이어받아 이번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본선은 덕진공원 야외 특설무대를 활용해 여는 방안도 검토했다.

올해 전국대회는 젊은 국악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야제공연과 신진예술인공연, 퓨전국악공연, 명인전하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준비해 펼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 국악 전용문인 전주대사습놀이를 모두가 함께하는 신명 나는 국악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공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출연 단체를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존회 누리집(www.jdsa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하루 한 문장” 글쓰기 배워요

한옥마을도서관, 3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프로그램 운영

한옥마을도서관에서는 전주 시민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 위해 힐링의 쉼터 공간으로 편의 제공을 위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준비해 운영하고 있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인 글쓰기 수업은 오는 3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한옥마을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하루 한 문장' 프로그램이다. 수업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이을 시인과 함께 이뤄진다.

이름 시인은 오디오북 플랫폼 '나디오' 글쓰기 강사와 객원 에디터 활동 등 전주와 타지역에서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펼쳐오고 있고,

지난해 5월 시집 '복숭아 판나코타 식 사람 고백'을 출간했다.

이름 시인은 매주 '제목 짓기, 각별했던 여행 쓰기, 카피라이팅의 이해, 서평 쓰기, 필사하며 정독하기, 편지 쓰기, 동화 쓰기, 간결한 비평 쓰기'를 주제로 시민들과 만나고 있다.

글쓰기 프로그램은 각자의 취향대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마련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해당 주차 수업 전 주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무료 신청이 가능하다.

/양은경 기자

“현장행정으로 신속 사업 추진 · 시민 소통 최우선”

엄익준 완산구청장, 신성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현장 점검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부서 관계자들과 관내 상반기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주민 편의를 앞당기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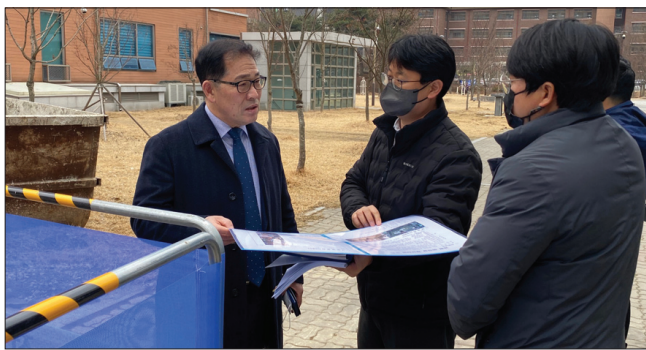
엄 구청장은 지난 17일 작업자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주의를 강조하고 신성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현장을 찾아가 신속집행 대하하여도 점검에 들어섰다.

신성공원 화장실개선은 완산구에서 시행하는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 일환으로서, 남녀 미분리된 공원 화장실의 남녀 칸을 분리해 공원 이용객들이 안

전하게 이용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상반기 지방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 지속적인 관내 현장행정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을 우선시하겠다”고 전했다.

완산구는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을 작년보다 2.4% 인상한 244억 원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분야에 182억 원을 집행하며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김영태 기자



엄익준 완산구청장은 부서 관계자들과 관내 상반기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주민 편의를 앞당기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전북환경청,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간담회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12월~2023.3월) 기간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 감축 협약 체결' 9개 사업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간담회는 배출량 감축 계획을 공유하고,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업장별로 추진된 협약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환경관리를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특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공동노력과 상호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협약에 참여한 9개 사업장은 계절관



리제 기간 자율적으로 설정한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과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미세먼지 감축 주요 성과 등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면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태 기자

전북병무청,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 실시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도내 병역지정업체(산업체) 복무관리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을 지난 17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달라진 주요 내용과 산업기능요원 복무에 관한 규정설명 내용을 담아 교육하고, 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유의할 점 등에 대한 사례 위주 교육으로 진행했다.

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안전수칙을 이해해 산업기능



요원의 근로 권익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산업지원인력의 복무관리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 담당자에 대한 내실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은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이 동 순방 2일째 일정으로 지난 17일 여의동과 송천1동을 찾아 전주 북부권 발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우범기 시장, 전주 북부권 발전 위해 시민과 소통 나서

우범기 전주시장이 동 순방 2일째 일정으로 여의동과 송천1동을 찾아 전주 북부권 발전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지난 17일 우 시장은 현장을 찾은 여의동 주민 300여 명과 송천1동 주민 400여 명들과 동별 주요 현안과 전주 북부권 발전을 위한 격 없는 소통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현장답변을 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하나씩 실천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